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매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원 수 경 박 선 영 설 경 옥[†]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설명할 기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겪는 양육스트레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전반적 평가인 핵심자기평가와 부적 상관을 갖고, 이는 곧 결혼만족도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부부라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핵심자기평가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의 나이가 만 4세인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에 참여한 부부 1658쌍을 연구대상으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모형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자체는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대로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핵심자기평가의 절하가 결혼만족도의 감소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핵심자기평가를 완전 매개하여 결혼만족에 유의한 자기 효과를 나타냈고,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내의 핵심자기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남편 자신은 물론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역할 변화로 인한 부모로서의 적응 및 결혼 만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에 갖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에 포함하였다.

주요어 : 양육스트레스, 핵심자기평가, 결혼만족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

* 이 연구는 2015년 10월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3918, E-mail : koseol@ewha.ac.kr

결혼생활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부가 함께 경험하는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이다 (Kluwer, 2010). 자녀의 탄생은 부부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는 동시에 자녀양육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제공한다(Nelson, Kushlev, & Lyubomirsky, 2014). 즉 자녀의 출산 이후 부모는 부모가 된다는 “축복”과 자녀 양육이라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모가 된다는 “축복”의 측면을 강조하여 자녀가 부모의 행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Eibach & Mock, 2011), 대부분의 연구에서 양육은 부부에게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과중한 업무로 다가와 결혼만족의 감소를 예측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밝혀졌다(연은모, 최효식, 2015; Belsky & Rovine, 1990; Evenson & Simon, 2005). Twenge, Campbell과 Foster(2003)의 메타 분석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결혼만족은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자녀의 수가 많은 부부의 결혼만족은 자녀의 수가 적은 부부보다 더 낮았으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내의 결혼만족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Twenge와 동료들(2003)은 자녀 출생 이후 부모는 역할 갈등과 함께 시간적, 경제적 제한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결혼만족 관련 논문 210편을 대상으로 부부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역시 자녀양육스트레스가 의사소통 문제, 갈등해결 방법 요인들과 함께 부부만족의 감소를 예측하는 6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김희진, 2004). 국내외 연구에서 일관되게 양육관련 스트레스와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부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자녀양육과 결

혼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상담에서의 개입을 위해서는 이 두 변인을 설명할 기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녀양육과 부부관계 만족의 부적 관계를 설명한 매개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기인 48개월 전후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를(문혁준, 2004; 손수민, 2012)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탐색하고 변수 간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부부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의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긴장감이다(Coplan, Bowker, & Cooper, 2003; Deater-Deckard, 1998).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부는 부모로서의 갑작스런 역할 변화를 겪게 되고 양육으로 인한 시간 제약으로 높은 수준의 내적갈등, 역할 과부하, 스트레스, 긴장을 경험한다(Mattingly & Sayer, 2006; Pollmann-Schult, 2014). 부모는 양육을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를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Deater-Deckard, 2004). 그러나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경험으로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부의 개인내 그리고 개인간 심리적 적응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다(Ross & Van Willigen, 1996; Wilson & Durbin, 2010). 먼저 개인내적으로는 자녀가 없는 부부와 비교하여 자녀가 있는 부부는 더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그리고 더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보고하였다(Evenson & Simon, 2005; Ross et al., 1996). 양육스트레스가 개인 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양육스

트레스는 결혼생활의 전반적인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인 부부의 결혼만족도 감소와 강한 상관이 있다(Bradbury, Fincham, & Beach, 2000).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지된 결혼만족 변화 동향 역시 자녀양육과 관련이 깊은데, 결혼만족도는 결혼 초부터 자녀양육 시기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자녀 독립 후 부부만 남는 시기부터 서서히 상승하는 U자 형태를 보인다(Rollins & Feldman, 1970; Shapiro, Gottman, & Carrère, 2000). 최근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출산 이후 부부의 삶의 만족과 결혼만족은 출산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Luhmann, Hofmann, Eid, & Lucas, 2012). 구체적으로 출산 전과 비교하여 출산 후 부부의 친밀감과 긍정적 상호작용은 감소하고, 부부 갈등과 의견 불일치는 증가하였으며(Kluwer & Johnson, 2007; Shapiro et al., 2000),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가사 노동 시간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들어 자녀양육은 부부의 결혼만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xton & Perry Jenkins, 2008; Dew & Wilcox, 2011). 다시 말해 자녀의 탄생 자체는 부부 모두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는 일이지만,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역할습득과 역할과부하, 시간의 제약과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부 간 긍정적 상호작용은 감소하고 부정적 의사소통은 증가하며 갈등은 소홀하게 대처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부부의 결혼만족은 감소하게 된다(Kluwer, 2010). Kluwer과 Johnson(2007)의 출산 후 5년 간의 중단연구에 의하면 임신 후 자녀가 만 4세가 되는 시기까지 부부의 관계만족은 계속 감소하였고, Doss, Rhoades, Stanley와 Markman(2009)의 출산 후 8년 동안의 중단

연구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는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하여 급속한 관계 만족을 경험하고 부부 갈등과 부정적 의사소통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과 결혼만족도의 부적 관계는 국내외 중, 횡단, 메타분석 등을 통해 일관적으로 나타났지만(금지현, 김동심, 2014; 연은모, 최효식, 2015; Bhargava, Kassam, & Loewenstein, 2014; Luhmann et al., 2012), 자녀양육과 결혼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매개 변인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제한적이다.

Bodenmann(2005)의 스트레스-이혼 모형은 양육 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부적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는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넘어서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데,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부는 더 빈번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부부는 결국 이혼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관계 외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스트레스로 인식되어 부부관계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고 불완전하게 처리되어 부부 관계의 질을 서서히 감소시켜 결국 결혼만족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일상스트레스는 신경증, 불안, 경직성과 같은 부정적인 개인내적 특성을 증가시켜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나 긍정적 가치관의 감소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성장 또한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 결혼만족을 더욱 낮아지게 한다(김시연, 서영석, 2008; Randall & Bodenmann, 2009). 즉 부부는 양육스트레스에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부정적인 특성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긍정적

인 상호작용은 줄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증가하면서(Doss et al., 2009) 결혼 만족 감소를 경험한다.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을 매개하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불안, 신경증과 같은 부정적 개인특성이 스트레스 이혼 모형을 통해 밝혀졌으며, 앞으로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매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andall & Bodenmann, 2009).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일상스트레스 범주 안에 있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변화시켜 결혼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Bodenmann(2005)의 스트레스-이혼 모형에 근거하여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 특성과 부부간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양육은 결혼생활에서 부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직무”이다. 양육은 부부가 공동으로 가족의 기능과 안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직무로서(Bornstein, 2002) 자녀가 신체, 정서, 사회적으로 고루 잘 성장하도록 자녀를 돌보고 기르는 행위이다(Darling, 1999). 양육은 가정 밖 직장의 직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돌보는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고 직장에서 경제적 보상을 얻는 것처럼 양육도 내적 즐거움, 기쁨, 감동이라는 심리적 보상을 얻는다. 반면에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것처럼(Pugliesi, 1999)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부부의 결혼만족까지 영향을 주어 가족의 기능까지 해칠 수 있다(Fawcett, 1988; Petch & Halford, 2008). 본 연구에서는 양육이라는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 밖 직장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감을 설명하는 핵심자

기평가 모형을 적용하였다.

핵심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는 개인의 자신에 대한 가치와 능력,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및 지각 정도이다(Judge, Locke, & Durham, 1997; Judge, Locke, Durham, & Kluger, 1998). 핵심자기평가는 단일차원의 개인 특성 개념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서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인 자존감,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과 수행, 효과적인 대처, 성공에 대한 자신의 역량 그리고 나의 삶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일 것이라는 전반적인 느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Judge, 2009). 개인의 핵심자기평가 수준에 따라 자기와 세상에 대한 지각과 반응에 차이가 나타난다.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개인은 복잡한 직무환경과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스로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경향성이 높았고 이는 높은 직무만족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 행복추구 수준도 높았다(Judge et al., 1997; Judge et al., 1998; Judge, Bono, & Locke, 2000). 그러나 직무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경험은 개인의 핵심자기평가에 손상을 주기도 한다.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핵심자기 평가의 저하는 결국 업무 스트레스나 도전적인 상황에 보다 부적응하게 되어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린다(Best, Stapleton, & Downey, 2005; Piccolo, Judge, Takahashi, Watanabe, & Locke, 2005).

Judge와 동료들(1997)은 이론적으로 핵심자기평가를 개인의 직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범위의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자기와 관련된 평가라고 제시하였다. 그들의 초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핵심자기평가를 자존감, 자기효능감,

통제소재, 낮은 신경증(안정된 정서)의 네 가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동패널데이터에서 측정된 부부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으로 핵심자기평가를 측정하였다. 비록 Judge와 동료들(1997)이 처음에 제시한 내적통제와 신경증을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긍정적 평가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자신감이라는 측면에서 양육과 관련한 핵심자기개념을 측정하는 대표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핵심자기평가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내적통제소재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유사함 개념임이 밝혀졌다(Bono & Judge, 2003). 또한, 자존감과 신경증도 개념적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Rosenberg(1965)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높은 신경증이라고 주장하였고 Eysenck(1990)는 낮은 신경증을 반영하는 지표로 높은 자존감을 제시하였다(Bono & Judge, 2003). 연구결과 핵심자기평가의 요인들 중 통제소재와 신경증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요인부하량이 나타났다(Bono & Judge, 2003; Dormann, Fay, Zapf, Frese, 2006).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통제소재의 이론적 정의가 자기에 대한 평가이기보단 환경에 대한 평가이며 외적보상과 관련이 있어(Rotter, 1966; Spector, 1982) 핵심자기평가 지표의 기준 중 자기와 관련된 평가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핵심자기평가 하위요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 통계적으로 통제소재가 핵심자기평가의 하위요인으로 포함되었을 때와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핵심자기평가의 적합도를 비교한 연구결과 통제소재를

제외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Johnson, Rosen, Chang, & Lin, 2015). 또한 한 후속 연구에서는 Judge와 동료들(1997)이 제시한 네 가지 변인 외에 핵심자기평가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으로 부정, 긍정 정서성, 낙관주의, 접근-회피 동기를 제안하였다(Johnson, Rosen, & Levy, 2008).

본 연구에서 핵심자기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은 개별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변인으로 독립적으로 자주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자기효능감은 결혼만족과 정적인 관련이 있고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인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준다(김종한, 2012; 김현미, 도현심, 2004, 노성향, 2014; 엄세진, 2014; 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 조성희, 박소영, 2012). 또한 중단 연구결과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자기효능감도 낮아졌는데(신나리, 안재진, 2014) 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자기평가의 부정적 변화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자기평가의 자존감 요인 역시 스트레스 적응 행동과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져왔다(Don & Mickelson, 2014; Sacco & Phares, 2001). 자존감은 관계 만족을 긍정적으로 예측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역할을 한다(김광웅, 2007; Agoub, Moussaoui, & Battas, 2005; Fincham & Bradbury, 1993; Murray, Holmes, & Griffin, 1996; Shackelford, 2001).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배우자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좌절, 불만, 피로호소와 같은 반응을 자신을 거부하는 뜻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결혼만족도가 낮았고 낮은 자존감은 자신 뿐 아

나라 배우자의 관계 만족과도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Don & Mickelson, 2014). 또한 10년 이상의 중단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존감은 미래의 관계만족을 예측한 것에 반해 관계만족이 시간이 지난 후의 자존감을 예측하지 못했다. 즉, 결혼만족이 자존감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이라기보다 자존감이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 더 타당함을 의미한다(Erol & Orth, 2014; Orth, Robins, & Widaman, 2012).

자기효능감이나 자존감 각각의 변인이 자신에 대한 표면적인 평가이고 단일 차원의 개인 특성인 것과는 달리 핵심자기평가는 두 변인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개인의 기저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특성을 통합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잠재변인이다(Bono & Judge, 2003; Judge et al., 1998). 지금까지 많은 선행 연구들이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자존감의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잠재변인인 핵심자기평가와의 관계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핵심자기평가는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보다 포괄적인 삶의 영역을 포함하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평가로 자신 뿐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각 하위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때 보다 여러 준거 변인들에 더 강한 설명력을 보였다(Judge, Erez, Bono, & Thoresen, 2003; Piccolo et al., 2005). 또한 핵심자기평가는 단일 차원의 변인들과 달리 자신의 가치, 태도, 동기, 인식과 같은 심리적 지각 과정과 실질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Bono & Judge, 2003; Carver, Sutton, & Scheier, 2000; Judge et al, 1997) 메타 연구 결과 직무만족 뿐 아니라 삶의 만족, 주어진 일에 대한 역할 수행, 직무 환경에 대한 지각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Ferris, Johnson, Rosen, & Tan, 2012). 따라서 부부의 자녀 양육이라는 직무수행 중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잠재변인인 핵심자기평가를 통해 살펴본다면 양육스트레스가 부부 결혼만족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인의 단일차원 특성이 아니라, 개인 특성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이혼 모형에서 제시하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부정적인 특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결혼만족이 감소한다는 이론과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핵심자기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핵심자기평가를 완전 매개로 결혼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양육스트레스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유의할 것이다. 셋째, 핵심자기평가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도 유의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결혼만족 변화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모두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Karney & Bradbury, 1997) 결혼 기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씩 만 7세까지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후 만 9세와 만 12세에 각 1회씩 총 10차에 걸쳐 구축되는 전국 단위 자료이다(김은설 외, 2012). 현재 연구자들에게 5차년도까지 자료가 공개되었고 본 연구는 자녀가 만 48개월이 된 5차년도 설문문에 참여한 부부 1703쌍 중 본 연구 변인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 결혼상대가 미혼이나 이혼 사별 별거인 45부를 제외한 1658쌍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7.26세($SD=3.97$),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79세($SD=3.70$)이었고, 평균 자녀수는 1.67명($SD=.72$), 평균 결혼 기간 7.91년($SD=3.26$ 년)이었다.

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를 기초로 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의 하위척도를 수정, 보완한 아동패널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예: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하여 척도가 일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문항 꾸러미의 요인계수가 유사하도록 문항의 요인계수 크기에 따라 각 꾸러미에 할당하는 균형할당 방법

(Matsunaga, 2008)으로 문항합산(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각각 세 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 양육스트레스는 .88 부 양육스트레스는 .86이었다.

결혼만족도

Schumm, Nicols, Schectman와 Grigsby(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Chung, 2004)을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번안 타당화한 아동패널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예: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단일 차원으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 결혼만족도는 .93 부 결혼만족도는 .92이었다.

결혼 기간

결혼기간은 결혼식 이후 패널자료 수집 당시까지의 결혼기간을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핵심자기평가

본 연구에서 핵심자기평가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측정되었다. 구체적인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Rosenberg(1986)가 개발하고 이상균(1999)이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아동패널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예: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단일 차원으로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일부 문항은 역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 자아존중감은 .88 부 자아존중감은 .85이었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PSID-CDS II(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에서 이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7; Mainieri & Grodsky, 2006)을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변안한 아동패널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예: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단일 차원으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다. 역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모 자기효능감은 .84 부 자기효능감은 .84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과 Amos 18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내적합치도(Cronbach's α)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으로 자료의 이상치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잠재변인 및 측정변인간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APIM)을 기반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핵심자기평

가를 매개로 부모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모형을 확인하였다. 부부의 결혼만족과 같은 변인은 상호 관련성 자료이므로 쌍이 아닌 개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1종 오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APIM은 적합한 분석방법이다(Kenny, 1996). 이 때, 결혼만족이 떨어지는 것이 결혼기간에 영향을 받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연구모형에서 결혼기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짝 자료인 본 연구에서 같은 시점 같은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변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간 오차상관을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한 후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간접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가 .90이상이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6이하이면 좋은 모형으로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스트래핑(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 및 변인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에 위배된다는 Kline(2005)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

표 1.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 (N=3406)

	1	2	3	3-1	3-2	4	4-1	4-2	5	6	7
1. 모 양육스트레스	1										
2. 부 양육스트레스	.41**	1									
3. 모 핵심자기평가	-.54**	-.28**	1								
3-1. 모 자기효능감	-.43**	-.27**	.73**	1							
3-2. 모 자아존중감	-.53**	-.28**	.96**	.51**	1						
4. 부 핵심자기평가	-.22**	-.50**	.35**	.26**	.30**	1					
4-1. 부 자기효능감	-.21**	-.51**	.27**	.32**	.20**	.76**	1				
4-2. 부 자아존중감	-.18**	-.44**	.30**	.20**	.30**	.96**	.55**	1			
5. 모 결혼만족	-.34**	-.28**	.30**	.22**	.30**	.29**	.24**	.24**	1		
6. 부 결혼만족	-.25**	-.36**	.24**	.20**	.25**	.36**	.37**	.29**	.38**	1	
7. 결혼기간	-.06*	.00	-.03	.02	-.04	-.05	.00	-.07*	-.06*	-.04	1
평균	2.73	2.40	5.28	4.05	3.18	5.32	4.08	32.53	3.68	4.01	95.30
표준편차	.65	.60	.68	.54	5.39	.69	.55	.52	.76	.65	39.17
왜도	.09	.04	-.01	.11	-.10	.14	.08	.09	-.82	-.55	1.8
첨도	-.03	.01	-.40	-.59	-.21	-.36	-.61	-.40	1.11	.67	6.92

* $p < .05$, ** $p < .01$, *** $p < .001$

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상관분석은 Cohen (1988)의 기준에 따라 해석한 결과,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모의 핵심자기평가($r = -.54, p < .01$), 모의 결혼만족도($r = -.34, p < .01$)와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의 핵심자기평가($r = -.22, p < .01$)와 그리고 부의 결혼만족도($r = -.25, p < .01$)와는 작거나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모의 핵심자기평가는 모의 결혼만족도($r = .30, p < .01$)와는 중간 크기의, 부의 결혼만족도($r = .24, p < .01$)와는 작은 크기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의 핵심자기평가($r = -.49, p < .01$)와 부의 결혼만족도($r = -.36, p < .01$)과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의 양육스트레스는 모의 핵심자기평가($r = -.28, p < .01$)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모의 결혼만족도($r = -.34, p < .01$)와 중간크기의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의 핵심자기평가는 부의 결혼만족도($r = .36, p < .01$), 모의 결혼만족도($r = .29, p < .01$)와 역시 중간크기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남자의 결혼만족, 여자의 결혼만족으로 하여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수들 간 상관이 .60을 넘지 않았고, 분산팽창계수(VIF)가 1.47에서 1.7까지 분포하였다.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고려하는(Grimm & Yarnold, 2000)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chi^2(113)=367.1, p < .001, CFI = .987, TLI = .980, RMSEA = .036$ (90% 신뢰구간=.032-.041)의 좋은 적합도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18개의 측정 변인으로 6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의 표준화 계수는 모 양육스트레스가 .81-.88($p < .001$), 모 핵심자기평가는 .68-.80($p < .001$), 모 결혼만족도가 .74-.92 ($p < .001$), 부 양육스트레스가 .77-.87($p < .001$), 부 핵심자기평가는 .70-.80($p < .001$), 부 결혼만족도가 .73-.91($p < .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결과 χ^2 는 543.0, 자유도(df) 129, CFI는 .979, TLI는 .969, RMSEA는 .043 (90% 신뢰구간=.040-.047)의 좋은 적합도로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 검증 결과 그림 1과 같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경로계수와 결혼기간이 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의 양육스트레스에서 모의 핵심자기평가로 가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beta = -.67, p < .001$), 모의 핵심자기평가에서 모의 결혼만족으로의 경로계수는 ($\beta = .32, p < .001$)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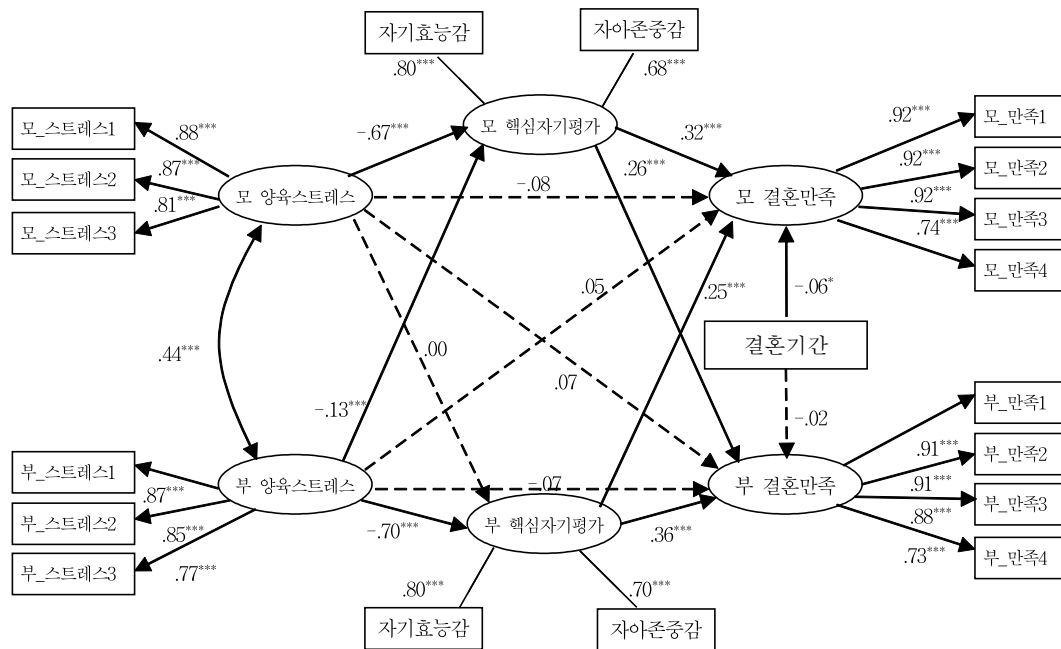


그림 1. 핵심자기평가의 매개 모형

* $p < 0.5$, ** $p < .01$,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아내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평가는 낮아지고 자기평가가 낮아지면 자신의 결혼만족도 또한 낮아지는 자기효과가 나타났으며 아내의 핵심자기평가가 낮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beta=.26, p<.001$) 상대방효과도 나타났다. 부의 양육스트레스에서 부의 핵심자기평가로의 경로계수는 ($\beta=-.70, p<.001$), 부의 핵심자기평가에서 부의 결혼만족으로의 경로계수는 ($\beta=.36, p<.001$)로 남편이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핵심자기평가는 낮아지고 핵심자기평가가 낮아지면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자기효과가 나타났고, 부 양육스트레스에서 모의 핵심자기평가로의 경로계수는 ($\beta=-.13, p<.001$), 부의 핵심자기평가에서 모의 결혼만족으로의 경로계수는 ($\beta=.25, p<.001$)으로 나타나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아내의 핵심자기평가가 낮아지고 남편의 핵심자기평가가 낮아지면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상대방효과 또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결혼기간은 아내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beta= -.06,$

$p<.05$)으로 유의하였다.

최종 다중 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팬텀 변수를 사용한 접근법(Chan, 2007)을 사용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alpha=.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모의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모의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27, 95\%$ Bias-corrected CI=[-1.98, $-.13$]으로 유의하고, 부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의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부의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31, 95\%$ Bias-corrected CI=[-1.23, $-.19$]으로 유의했다. 또한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의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모의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18, 95\%$ Bias-corrected CI=[-1.25, $-.06$]으로 유의했으며, 부의 양육스트레스와 모의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부의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26, 95\%$ Bias-corrected CI=[-1.22, $-.14$]수준으로, 모

표 2.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N=3406)

매개경로					Bootstrap 추정치	95%신뢰구간 Bias-corrected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하한	상한			
간접 효과	자기 효과	모스트레스	→	모핵심평가	→	모만족	-.27*	.05	-1.98	-.13	
		부스트레스	→	부핵심평가	→	부만족	-.31*	.05	-1.23	-.19	
		모스트레스	→	모핵심평가	→	부만족	-.18*	.04	-1.25	-.06	
		상대방 효과	부스트레스	→	부핵심평가	→	모만족	-.26*	.05	-1.22	-.14
			부스트레스	→	모핵심평가	→	모만족	-.07*	.02	-.46	-.03
			부스트레스	→	모핵심평가	→	부만족	-.04*	.01	-.33	-.02

* $p < 0.5$, ** $p < .01$, *** $p < .001$

의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07$, 95% Bias-corrected CI= $[-.46, -.03]$ 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의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모의 핵심자기평가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04$, 95% Bias-corrected CI= $[-.33, -.02]$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의 행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Hansen, 2012).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국내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의 만족 및 정서적 안정감을 감소시키고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일관적으로 보고한다(최효식, 연은모, 2014; Luhmann et al., 2012; Rizzo, Schiffrin, & Liss, 2013). 본 연구는 자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부간 상호작용에서 결혼만족도의 부적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을 하는 부부가 양육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신에 대한 전반적 평가인 핵심 자기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결혼만족이 감소하게 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고, 부부라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핵심자기평가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핵심자기평가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예상대로 남편과 아내 모두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을 직접 예측하지는 못하였고 두 변인 사이를 핵심자기평가가 완전매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된 모형의 자기-상대방 효과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핵심자기평가에 유의한 자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모두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핵심자기평가는 낮아졌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과 부적인 관계를 갖고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낄수록 자신의 효능감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문영경, 민혜숙; 2012)와 일치하며 남편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Kwok, Ling, Leung, & Li, 2013) 자존감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Komoto, Hirose, & Okamitsu, 2013)를 지지한다. 한편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남편의 핵심자기평가에 이르는 상대방 효과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내의 핵심자기평가에 이르는 상대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에 대한 핵심자기평가가 부정적이 되는 동시에 남편이 받는 양육스트레스에도 아내 자신의 핵심자기평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기 개념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남편에 비해 아내가 배우자의 특성이나 결혼만족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은, 2005;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2; Cross & Madson, 1997; Kwang, Crockett, Sanchez,

& Swann, 2013). 아내는 남편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를 자신의 존재와 결혼 관계의 질을 해칠 수 있는 위협으로 지각하여 그로 인해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저하 되었을 수 있다. 또한 아내는 남편과 달리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스스로를 주책임자로 인식하기 때문에(Allen & Hawkins, 1999), 효율적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남편보다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보고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주양육자인 아내는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여겨 아내는 자신이 양육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뿐 만이 아니라 남편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에도 자신의 대한 낮은 정서적 평가와 효능감의 절하를 불러 일으켰을 수 있다. 핵심자기평가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하고,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 또한 남편과 아내 모두 유의하였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따라 자신의 결혼만족 뿐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까지도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McNulty, Baker와 Olson(2014)의 종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배우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부부관계에서 자기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상대의 사소한 부정적 메시지나 스트레스 반응을 자신에 대한 거부의 뜻으로 해석하게 되어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Don & Mickelson, 2014; Kwok et al., 2013; Murray, Rose, Bellavia, Holmes, & Kusche, 2002).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핵심자기평가를 제시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 각자의 양육스트레스는 자신의 핵심자기평가에만 유의한 상관이 있고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부모의 결혼만족이 감소하는 현상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 보다는 양육스트레스라는 환경적 변인이 부부 개인 내적 특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개인 내적 특성의 변화가 결국 부부의 상호작용 변인인 결혼만족의 변화에 주는 과정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도왔다. 본 연구는 양육이라는 부부 공동 과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에 따른 개인 특성인 핵심자기평가의 변화와 부부간의 관계 만족의 변화를 부부 각각이 아닌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자기효과는 물론 상대방 효과까지 함께 검증한 의의가 있다(Bradbury, Fincham, & Beach, 2000). 이를 통해 주 양육자인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던 이전 연구에서 나아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남편 자신은 물론 아내에게 주는 영향도 연구하여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의 핵심자기 평가의 수준을 낮추게 되고 이는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제시하였다.

상담 실제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부부가 양육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부모나 배우자로서 자신의 가치나 효능감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되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필연

적인 일이고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이나 의사소통의 질이 결혼만족과 지속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이 알려져 왔다(오현주 등, 2012; Kiecolt-Glaser & Newton, 2001). 마찬가지로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여느 부부가 겪는 보편적인 현상임으로 양육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개인을 상담하는 경우나 양육의 어려움과 결혼만족도의 저하를 경험하는 부부를 상담하는 경우, 개인이나 사회에서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는 달리 양육자체가 부모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이 보편적일 수 있다는 인식과 공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의 저하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으로 이를 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담자의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양육스트레스 자체가 결혼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지기 보다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자책과 스스로에 대한 평가 절하가 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의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 양육스트레스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에 대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게 도울 수 있다. 또한 남편의 경우 자신이 호소하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내에게는 아내 스스로의 존재나 결혼생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고, 남편 자신뿐 아니라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부 모두에게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의 안녕을 위해서도 중요

한 일임을 인식시켜 상담에 대한 동기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녀가 만 4세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자녀의 연령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다수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거나(김진경, 2014; 연은모, 최효식, 2015; 서원석, 이대균, 2013) 특수집단인 이민여성, 장애행동 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 만족(이은희, 옥경희 2012; 장은정, 2007)을 다루고 있어 학령기나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변인은 횡단 자료만을 활용하였는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은 결혼주기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임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자료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Williford, Calkins와 Keane(2007)의 연구에서 양육 초기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2년 뒤에도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였고 이는 어머니 개인의 정서적인 변인이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계속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부의 결혼만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아직 종단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살펴볼 수 없기에 앞으로 종단적인 자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은 직접적 관계가 없고 양육스트레스에서 오는 부부의 부정적 핵심자기평가에 의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핵심자기평가라는 부부의 개인내적 변인이 결혼만족도라는 개인 간 변인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다양한 부부 개인내적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부의 핵심자기평가의 변화가 부부간의 부정적 의사소통의 증가나, 서로에 대한 긍정적 지지저하와 같은 부부간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 결국 부부만족도의 저하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패널자료의 2차 분석이라는 방법론적 한계로 인하여 Judge와 동료들(1997)의 초기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핵심자기평가의 4개의 하위요인을 모두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이라는 부부의 공동 직무와 관련된 핵심자기 평가의 영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측정 영역을 수정 보완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지현, 김동심 (2014).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배우자 양육참여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2(2): 141-150.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 결혼만족도,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김광웅 (2007).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스트레스 대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83-999.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심리치료*, 20(4), 1243-

1267.
 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 (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서울: 육아정책연구.
 김진경 (2014). 부모기 전이에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인의 결혼만족도간 관계: 자기효능감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동복지연구*, 12(1), 1-17.
 김희진 (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839-853.
 김종한 (2012). 사회적 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간 경로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9), 3924-393.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노성향 (2014).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45-59.
 문영경, 민혜숙 (2012). 영아의 기질,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이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59-70.
 문혁준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서원석, 이대균 (2013).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영아의 정서성 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3(5), 279-298.
 손수민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

-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신나리, 안재진 (201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5(5), 135-154.
- 엄세진 (2014).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스타일의 매개효과.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11(1), 1-12.
- 연은모, 최효식 (2015).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간 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90, 79-108.
- 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 영유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양육협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6, 51-78.
-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2). 회피애착이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및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25-546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은희, 옥경희 (2012). 결혼이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의 매개 효과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197-215.
- 장은정 (2007).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논문 고찰, 2000년대 논문을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5(2), 123-137.
- 조성희, 박소영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05-524.
- 최효식, 연은모 (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goub, M., Moussaoui, D., & Battas, O. (2005). Prevalence of postpartum depression in a Moroccan sample.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8(1), 37-43.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 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199-212.
- Anderson, J. F.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est, R. G., Stapleton, L. M. & Downey, R. G. (2005). Core self-evaluations and job burnout: the test of alternative model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 441.
-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9.
- Bhargava, S., Kassam, K. S., & Loewenstein, G.

- (2014). A reassessment of the defense of parenthood. *Psychological science*, 25(1), 299-302.
- Bodenmann, G. (2005). *Dyadic Coping and Its Significance for Marital Functioning*. N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no, J. E. & Judge, T. A. (2003). Core self-evaluations: A review of the trait and its role in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S1), S5-S18.
- Bornstein, M. H. (2002).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Mahwah, N.J: Erlbaum.
- Bradbury, T. N., Fincham, F. D., & Beach, S. R. 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964-980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0(2), 230-258.
- Carver, C. S., Sutton, S. K., & Scheier, M. F. (2000). Action, emotion, and personality: Emerging conceptual integr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6), 741-751.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2), 326-346.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 Claxton, A. & Perry Jenkins, M. (2008). No fun anymore: Leisure and marital quality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28-43.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n). Hillsdale: New Jersey.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376-395.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
- Darling, N. (1999). Parenting style and its correlates. Clearing 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Retrieved. <http://ecap.crc.illinois.edu/eecs/archive/digests/1999/darlin99.pdf>.에서 2014. 8. 5 자료 얻음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and Practice*, 5, 314-332.
- Deater-Deckard, K. (2004). *Parenting stres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ew, J. & Wilcox, W. B. (2011). If Momma ain't happy: Explaining declines in marital satisfaction among new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 1-12.
- Don, B. P. & Mickelson, K. D. (2014). Relationship satisfaction trajectories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mong low-risk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3), 677-692.
- Dormann, C., Fay, D., Zapf, D., & Frese, M. (2006). A state-trait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On the effect of core

- self-evalu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5, 27-51.
- Doss, B. D., Rhoades, G. K., Stanley, S. M., & Markman, H. J. (2009).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on relationship quality: an 8-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3), 601.
- Eibach, R. P. & Mock, S. E. (2011). Idealizing parenthood to rationalize parental investments. *Psychological Science*, 22, 203-208.
- Erol, R. Y. & Orth, U. (2014). Development of self-estee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uples: Two longitudinal studies. *Developmental psychology*, 50(9), 2291.
- Evenson, R. J. & Simon, R. W. (2005).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hood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 341-358.
- Eysenck, H. J. (1990). Genetic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individual differences: The three major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58(1), 245-261.
- Fawcett, J. T. (1988).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11-34.
- Ferris, D. L., Johnson, R. E., Rosen, C. C., & Tan, J. A. (2012). Core self-evaluations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anagement*, 38(1), 81-128.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93).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ttribution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42-452.
- Grimm, L. G. & Yarnold, P. R. (2000).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nsen, T. (2012). Parenthood and happiness: A review of folk theories versus empirical evid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1), 29-64.
- Hofferth, S., Davis-Kean, P. E., Davis, J., & Finkelstein, J. (1997). The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user guide. *Ann Arbor: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 Johnson, R. E., Rosen, C. C., & Levy, P. E. (2008). Getting to the core of core self-evaluation: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9, 391-401.
- Johnson, R. E., Rosen, C. C., Chang, C., & Lin, S. (2015). Getting to the core of locus of control: Is it an evaluation of the self or the environ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0(5), 1568-1578.
- Judge, T. A. (2009). Core self-evaluations and work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1), 58-62.
- Judge, T. A., Bono, J. E., & Locke, E. A. (2000).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job characteristic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2), 237.
- Judge, T. A., Erez, A., Bono, J. E., & Thoresen, C. J. (2003). The core self-evaluations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nel Psychology*, 56, 303-331.
- Judge, T. A., Locke, E. A., & Durham, C. C. (1997). The disposition causes of job satisfaction: A core evaluations approach.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

- 151-188.
- Judge, T. A., Locke, E. A., Durham, C. C., & Kluger, A. N. (1998). Dispositional effects on job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core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1), 17.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7). Neuroticism, marital interaction,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75-1092.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Kiecolt-Glaser, J. K. & Newton, T. L. (2001). Marriage and health: his and hers. *Psychological bulletin, 127*(4), 472.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 Komoto, K., Hirose, T., & Okamitsu, M. (2013). Nursing intervention in infant mental health: Enhancing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self-esteem of adolescent mothers. *J Nurs Care S, 5*, 2167-1168.
- Kluwer, E. S. (2010). From partnership to parenthood: A review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2*(2), 105-125.
- Kluwer, E. S. & Johnson, M. D. (2007). Conflict frequency and relationship quality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1089-1106.
- Kwang, T., Crockett, E. E., Sanchez, D. T., & Swann, W. B. (2013). Men seek social standing, women seek companionship sex differences in deriving self-worth from relationships. *Psychological science, 24*(7), 1142-1150.
- Kwok, S. Y., Ling, C. C., Leung, C. L., & Li, J. C. (2013). Fathering self-efficacy, marital satisfaction and father involvement in Hong Ko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8), 1051-1060.
- Luhmann, M., Hofmann, W., Eid, M., & Lucas, R. E. (2012). Subjective well-being and adaptation to life ev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3), 592-615.
- Mainieri, T. & Grodsky, M.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s guide supplement for CDS-I). <http://psid online. isr. umich.edu/CDS/CDS1 UG Supp. pdf>.에서 2014. 9. 10 자료 얻음
- McNulty, J. K., Baker, L. R., & Olson, M. A. (2014). Implicit self-evaluations predict changes in implicit partner evaluations. *Psychological science, 25*(8), 1649-1657.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 Mattingly, M. J. & Sayer, L. C. (2006). Under pres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 time and feeling rush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205-221.
- Murray, S. L., Holmes, J. G., & Griffin, D. W. (1996). The benefits of positive illusions: Ide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79-98.

- Murray, S. L., Rose, P., Bellavia, G., Holmes, J. G., & Kusche, A. (2002). When rejection stings: How self-esteem constrains relationship enhancement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556-573.
- Nelson, S. K., Kushlev, K., & Lyubomirsky, S. (2014). The Pains and Pleasures of Parenting: When, Why, and How Is Parenthood Associated With More or Less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40*(3), 846-895.
- Orth, U., Robins, R. W., & Widaman, K. F. (2012). Life-span development of self-esteem and its effects on important life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271-1288.
- Petch, J. & Halford, W. K. (2008). Psycho-education to enhance couples' transition to parenthood.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7), 1125-1137.
- Piccolo, R. F., Judge, T. A., Takahashi, K., Watanabe, N., & Locke, E. A. (2005). Core self-evaluations in Japan: Rela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8), 965-984.
- Pollmann-Schult, M. (2014). Parenthood and Life Satisfaction: Why Don't Children Make People Happ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2), 319-336.
- Pugliesi, K. (1999). The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Effects on work stress, job satisfaction, and well-being. *Motivation and Emotion, 23*(2), 125-154.
- Randall, A. K. & Bodenmann, G. (2009). The role of stress on close relationships and marital satisfac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 105-115.
- Rizzo, K. M., Schiffrin, H. H., & Liss, M. (2013). Insight into the Parenthood Paradox: Mental Health Outcomes of Intensive Mother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2*(5): 614-620.
- Rollins, B. C. & Feldman, H. (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0-2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Malabar, FL: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 Ross, C. E. & Van Willigen, M. (1996). Gender, parenthood, and ang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2-584.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 Sacco, W. P. & Phares, V. (2001). Partner Appraisal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Self 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504-513.
- Schumm, W. A., Nichols, C. W., Schectman, K. L., & Grigsby, C.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 Shackelford, K. T. (2001). Self esteem in marri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3), 371-390.
- Shapiro, A. F., Gottman, J. M., & Carrère, S.

- (2000). The baby and the marriage: Identifying factors that buffer against decline in marital satisfaction after the first baby arr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59-7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1), 1-10.
- Spector, P. E. (1982). Behavior in organizations as a function of employees' locus of control. *Psychological Bulletin, 91*, 482-497.
- Twenge, J. M., Campbell, W. K., & Foster, C. A. (2003). Parenthood and marital satisfaction: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574-583.
- Williford, A. P., Calkins, S. D., & Keane, S. P. (2007). Predicting change in parenting stress across early childhood: Child and matern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2), 251-263.
- Wilson, S. & Durbin, C. E. (2010).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167-180.
- 원 고 집 수 일 : 2015. 09.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5. 12. 29
게 재 결 정 일 : 2016. 01. 13

Core Self-Evaluation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Su Kyung Won

Sun Young Park

Kyoung Ok Seol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 mechanism in the link between child rearing and low marital satisfaction. We hypothesized that core self-evaluation would mediate the link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We applied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to analyze data from 1658 parents who have 4-year old children identified from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data 5th wave. As expected parenting stress did not directly predict a decrease in marital satisfaction among couples. However, we found that core self-evalu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More specifically, through core-evaluations, parenting stress indirectly predicted marital satisfaction. Additionally, we found the partner effect among wives but not among husbands. That is, husbands' parenting stress negatively related to wives' core self-evaluation, and that in turn negatively predicted wives' marital satisfaction.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ing stress, core self-evaluation, marital satisfaction, APIM, panel data